

社說

김영우 당선인에게 바란다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김영우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영우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메시지라고 봐야한다. 김영우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지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같이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김영우 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라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대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포천과 연천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영우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같은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우 당선인 또한 이번 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민심의 요청이라고 했다.

김영우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심을 살렸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살고있는 사람처럼 뼈저린 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반세기 동안 재산권 침해에 당해 왔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 법령으로 꿈꿨던 땅이 있어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목을 조이고 있는 것들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포천과 연천에서도 정치인을 배출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없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본다.

김영우 당선인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서 뭐가 필요한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선출직 공직자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천과 연천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주민미군공여지특별법 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법률개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큰 밑거름을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수십년 동안 피해를 봐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약한 사항들은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뭐든지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당선되면 자신의 속한 정당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공약한 내용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반복된 말을 해 왔다.

주민들이 왜 정치인을 불신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으로 국회에서 일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08 새해설계 ⑦ 포천시의회 의원 이증호

교통문제 해결위해 포천시 인적네트워크 구축 필요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 수렴하는 포천시의회로 탈바꿈

포천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는 2000년도에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당초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으며 단일 목적건물로는 최대규모인 포천반월아트홀 건립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차례 설계 변경시켰다.

포천시의회 이증호(사진) 의원은 그동안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축되고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 견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2년 정도의 업무과외 시간이 필요하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포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이 의원은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출퇴근길에 차량정체로 도로 위에서 낭비하는 기름 값은



로 도로를 개설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 전철 등 입체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해 포천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외부에 나가있는 포천시 인적 자원은 물론 포천에 거주하는 뜻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며 그 연결고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현재 중선거구제에 대해 이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률적인 잣대로 만들어놓고 예산지출 최소화로 지방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이 있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땅이 넓은 포천시와 같이 도농 복합시에는 부합되지 않는 선거 제도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포천시 공직자들이 비록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성을 갖고 공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란다. 평상시 타성에 젖어 벗어나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국 긍정적인 노력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포천시민들께서는 포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원과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항상 의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포천신문이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성 있는 지역 정론지로 다방면의 기사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정병학 국장 명예퇴임

포천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 서기관 이영재 사무관 노경만 승진

정병학 포천시 주민생활지원 국장은 4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정 국장은 "한나라당 관계자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서 "한나라당 공천에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또 "30년 이상 공직경험을 토대로 포천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포천시민에게 꿈을 나눠주고 함께 도약하는데 열정과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정병학 국장은 오후에 시청 대강당에서 심재인 시장권대행과 기관단체장, 가족, 동료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정병학 국장이 명예퇴임으로 포천시는 인사위원회를 갖고 자치행정과 이영재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결정했으며, 노경만 지방행정주사를 5급 사무관으로, 이우석 지방농업주사보가 6급 승진이 결정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정병학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4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광능숲 우회도로 올 연말 開通

국도43호선 교통체증 해소로 지역개발 기대

광능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광능숲우회도로(소흘읍 이동교리~내촌면 진북리 7.86km)가 2008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2002년부터 840억을 투자한 광능숲우회도로는 면적 2천 240ha에 식물 3900여종과 서식동물 2900여종 및 크낙새를 비롯한 2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있는 동·식물 자생지의 보고인 국립수목원의 귀중한 자연을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광능숲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마전~삼송간 도로(양주시 마전리~소흘읍 이동교리 4.14km) 또한 비스



광능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광능숲우회도로가 2008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22일부터 포천시 여권 발급 개시

포천시에서도 여권을 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4월2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한다.

그동안 경기제2청사(의정부)에 여권사무수행기관이 설치돼 있어,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여권발급을 위해 경기 제2청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엔 포천시에서 여권발급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게 돼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규제완화

포천시 이동 관인 영북 창수일원, 주민불편 해소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5m 행정위탁지역이 15m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되며 이어 이동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일원(565만㎡)도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소회산리·산정리·자일리·운천리·문암리, 창수면 주원리 일대의 제한보호구역과 5.5m, 11m행정위탁지역이 8m, 15m등으로 완화되고 이동면 연곡리·장암리 일대의 군협의지역인 비행안전구역(2·3구역)이 5.5m와 15m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되어 신·증축될 건축물의 높이가 행정위탁의 높이 미만이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게 돼 이전보다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포천시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 작년 하반기부터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2월 11일 합참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도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3월 31일 ~ 4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3. 31 포천신문 제408호 발행
2008. 4. 10 포천신문 제409호 발행
2008. 4. 20 포천신문 제410호 발행예정